



국립생태원



녹색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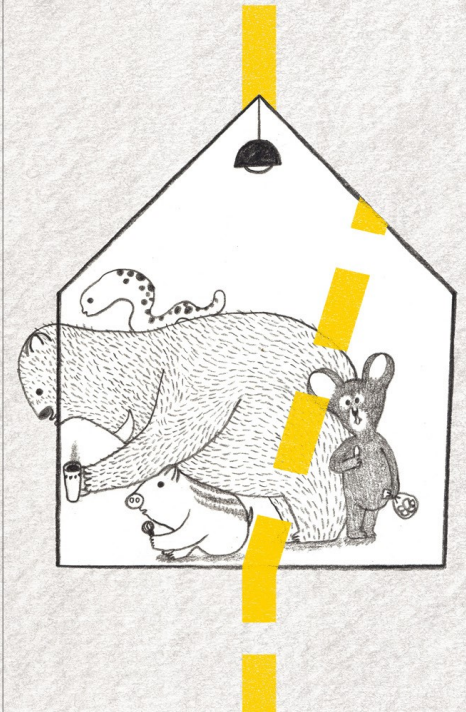


동물차길사고 로드킬이란?

로드킬은 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다
자동차에 충돌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들의 행동반경 어디에나 도로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천적은 '도로'라고 할 정도로 하루에도
추정하기 힘든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고 있습니다.
2차, 3차 인명피해로 인해 로드킬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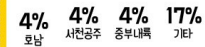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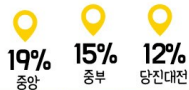
로드킬, 왜 발생하나요?

야생동물은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먹이를 구하려 가거나 새끼를 낳기 위해서, 어미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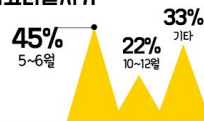
하지만 도로는 서식지와 활동영역을 단절시켜 놓았고 이를 지나가려다 사고를 당합니다. 로드킬 사고의 특성상 낮과 밤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고라니의 경우 자동차 불빛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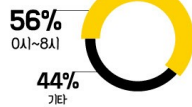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다발노선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다발시기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다발시간



고속도로 로드킬 다발노선, 시기, 시간 「13.1~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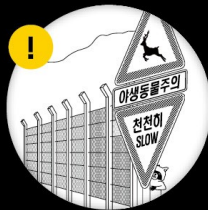


고속도로 콜센터 _ 1588-2504 일반국도 _ 110

'여기에 고라니가 죽어 있어요'

로드킬 신고 110번으로 로드킬 사고를 알려주세요. 도로에 동물이 죽어있다는 **당신의 간단한 신고가 기록이 되어 동물과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만듭니다. 로드킬 사고의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로드킬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로드킬 이렇게 대처하세요!



항상 안전운전

과속을 하지 않으면 로드킬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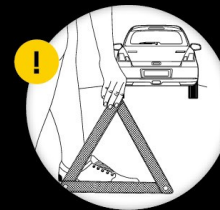
-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도로전광판·내비게이션에서 주의 안내 시 감속 주의
- 1년 중 5~6월과 10~12월 주의, 하루중 새벽시간은 특히 주의



동물 또는 사체 발견시

동물을 발견한 경우 경적을 울리며 서행 통과 합니다. 동물을 발견했거나 사체 발견 시 안전지대에서 신고합니다.

- 핸들 급조작, 급브레이크, 상향등 금지
- 상향등 사용시 동물시력장애 발생, 차량 돌진 위험



동물과 충돌했을 경우

동물사체 및 부상동물을 만지거나 옮기지 않고 2차 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지대에서 신고합니다.

- 핸들 급조작, 급브레이크 금지
- 비상정명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이동,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 설치, 운전자도 안전지대로 대피 후 후속차량 수신호(신호봉, 수건, 옷 등 활용)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로드킬,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는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축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유도 울타리,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5월, 11월)에 언론, 도로전광판 안내 등을 통하여 로드킬 예방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발생현황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5월 환경부, 국토부, 녹색연합이 협업하여 로드킬 조사용 앱인 **'굿로드'를 도입** 하였습니다. 굿로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실태분석과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속도를 줄이는 등 운전자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실천이 함께한다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